

미가서 강해 (5)

- 거짓 지도자와 참된 예언자

미가 3:1-12; 마태복음 23:1-39

미가서 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의 집과 밭을 빼앗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백성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끔찍한 멸망이 닥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3장에서도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참된 예언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2장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 집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을 지목하면서 그들의 죄를 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백성의 밭과 재산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 백성의 살을 먹고 뼈를 요리하고 있다’고 매우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입에 씹을 것을 받으면 평안을 외쳐 주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시온을 세운다고들 하지만 사실상 피와 불의로 세우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헐고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장의 표현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도 이처럼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에도 선언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러한 어둠의 배경에서 찬란히 빛을 발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나는 야곱에게 그의 반역죄를,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포할 힘과 여호와와 신으로, 공의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3:8) 하고 선언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참된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논죄의 내용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놓고 3장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1.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1-4절)

- 1 내가 말하였다. “들여라,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 2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그들에게서 살갓을 벗기며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 3 그런데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갓을 벗기고 그 뼈를 다진다. 냄비에 있는 것처럼,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잘게 썬다.
- 4 그 후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그분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리니,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1) 지도자들의 행위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에게 공의가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의를 시행하는 백성의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21:6, ‘엘로힘’). 시편 82편에서도 공의로 재판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신들’이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82:6) 그러한 그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켜 신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요 10:34). 공의를 알고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 행하는 매우 영광스럽고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나 악은 추상적인 윤리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가리키는 데, 2-3절을 보면 이 점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밭, 그리고 옷을 빼앗는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반해, 3장에서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갓을 벗기고 그 뼈를 다진다. 냄비에 있는 것처럼,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잘게 썬다**” 하고 더욱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를 자세히 살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순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잘 요리된 것을 먹기보다는 먼저 살을 한 입 베어 문 다음에 요리를 합니다. 살갓을 벗기고 뼈를 다져서 냄비나 가마솥에 넣어서 요리를 합니다. 고기를 잘게 썰어서 먹을 뿐 아니라 뼈까지 다져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웁니다. 마치 끓주린 맹수가 어린양을 잡아서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는 것 같은 묘사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일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서는 다소 밋밋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 귀를 막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겨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잠 28:9).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 31:17)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모든 재난이 하나도 감함이 없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이처럼 적극적으로 형벌에 버려두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써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짧은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담대히 악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얼굴을 가리실 것이고, 장차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빛 아래서 살기를 힘썼는데,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되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에는 깊이와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사는 것이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심판과 사망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악인들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도적질이나 간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짓는 동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시 14:1).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면서 담대히 악을 행하고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들에게 심판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실 것입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심판의 핵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신 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 8:12)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죄악을 즐긴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바로 심판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몰래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겉으로는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고 매우 두려운 상태에 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미가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핵심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임을 알려 주시고, 그 일은 몰래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비판 (5-7절)

- 5 내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예언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에 씹히는 것을 주면 평안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언하는도다.
- 6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임하여 환상이 없을 것이고, 너희에게 어둠이 임하여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들 위에는 해가 지고 그들에게는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 7 선견자가 수치를 당하고 점쟁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모두 자기 입을 가리리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5절부터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지

만, 이들은 다른 말을 전함으로써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이에 씹을 만한 것이 있으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입에 먹을 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전쟁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여부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면 그의 화만 돋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려면 이에 씹히는 고기와 같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살을 먹는 그러한 자리에 초청해야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포도주에 대하여 예언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로 인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상류층의 말을 들어 주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따라 예언이 좌우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으로 위협하면서 착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승리를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 여로보암 2세 때에 벳엘의 제사장으로 활동한 아마샤 같은 사람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신약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교리로 사람들의 양심을 눌러서 면벌부를 팔았던 로마 가톨릭도 이러한 예에 속합니다. 또한 사회의 유력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요즈음의 교회들도 바로 이러한 데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밤이 임하여서 환상이 없게 되고, 그들에게 어둠이 임하여 점을 치지 못하게 되며, 그들에게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점치는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점괘가 하나도 맞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 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에 그 배경은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사실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른 영역에서는 매우 총명한 자들입니다. 2-3장에 기록된 지도자들을 보아도 다른 이들을 착취할 때에 밤에 집에서 계획을

면밀히 꾸미고 아침에 곧장 시행하여 뼈까지 다져 요리한 다음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짓 종교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계속 머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자신들의 점괘가 맞지 않아 부끄럽게 되어도 그들의 행위는 변함이 없으며,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매우 암담하지만, 3장에는 그러한 어둠을 배경으로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3.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 (8절)

8 그러나 나는 여호와와 신이 주는 능력으로 가득하고, 공의와 힘으로 가득하여서 아굽에게 그의 반역죄를,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악을 선포할 수 있다.

사방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언자를 세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미가는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는 이스라엘 변방의 모레셋이라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여호와와 신’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따라서 공의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참된 예언자로 밝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17과 25절에서도 모세와 칠십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최초의 예언자 모세도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는데, 미가 예언자도 자신이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공의와 힘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 하나님의 신과 능력, 공의와 힘

미가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가득하게 된 이 능력이, 다름 아닌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힘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반하여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듣

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마련하려고 악을 행한 사람의 죄를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의 귀를 굽어 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아부할 뿐이지, 공의를 저버린 죄를 지적할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죄는 교묘하고 강한 것인데, 그 교묘함을 말씀으로 지적해 내고 온유하고도 지혜로운 말로 완고한 자를 꺾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성신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악의 습관에 오래 물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인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하는 그 일을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참으로 힘이 없고 약한 방식 같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성신이 나에게 채워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로, 미가 예언자는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2-3장에서 공의란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내 백성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의 ‘기업’으로 삼아서 경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정하신 회년의 규례를 시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밭에 밭을 이어 붙이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 붙여서 그 땅을 독차지하고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종교적인 활동은 계속 이어가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그 땅에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선포하고, 그 공의의 원칙에 따라 심판의 말씀을 선언할 자로 자신이 세움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가 예언자는 자신에게 힘이 가득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힘’이란 ‘용사가 발휘하는 힘’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감연히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전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용사의 힘’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짓 예언자와 대비가 됩니다. 거짓 예언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들

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말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세움을 입고 힘 있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의 활동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2) 참된 예언자의 사역

예언자가 하나님의 신과 그 능력을 입고 공의와 그것을 시행할 용사의 힘으로 충만함을 입은 것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반역과 그 죄악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 일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반역죄’(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죄가 백성 중에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죄악’(하타)은 특히 목표에서 어긋나는 죄를 가리키는데, 그릇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처럼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돌이키게 하는 과업을 예언자는 맡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평화를 외치지만,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심판을 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인기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4.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 (9-12절)

- 9 “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은 모두 굽게 하는도다.
- 10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운다.
- 11 그 도시의 두령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그 제사장들은 값을 받고 가르치고 그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 12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밧처럼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이 무성한 높은 언덕처럼 [산당처럼] 될 것이다.

1) 지도자들의 죄

참된 예언자로 세움을 받은 미가 예언자는 그 직분대로 야곱 집의 두령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그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와 불의로 건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돌무더기를 만드는 일 곧 시온을 철저히 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하나같이 공의를 미워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책망합니다. 그 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며 제사장들은 샅을 위하여서 가르치며, 예언자들도 돈을 받고서 ‘점을 칩니다’. 그들은 예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점을 친다’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헛되이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정작 여호와께서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는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자기들 안에 있으니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예레미야 예언자도 동일하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7:4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악을 행할 때부터 이미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셨는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붙잡고 성전의 외관만을 의뢰하며 그 백성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2) 철저한 파괴 (12절)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이 마치 밭 갈 듯이 뒤엎어져 황폐하게 될 것이고 돌무더기만 남을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은 수풀이 무성한 높은 언덕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백성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과 시온 성을 철저히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미가 예언자의 이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

적인 이유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이 쉽게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둘째,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높은 산에 있는 요새였으므로 쉽게 함락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이라도 하늘에서부터 심판이 내리면 피할 수 없
을 것입니다. 1장 초두에서 미가 예언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산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였고, 이제 3장에서도 시온과 성전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매
우 암울한 이야기로 이 부분을 마칩니다.

3) 히스기야의 회개

미가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누가 이 예언을 듣고 회개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런데 이 미가서 3장에 대한 내용이 후대에 예레미야 26장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습
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
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
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
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렘 26:18-19)

이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 미가 예언자의 활동이 무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회개
로 이어졌고, 또한 약 100년 후에 활동한 예레미야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고, 항상 그 효력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5. 상류층만의 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가 지도
자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한 가지 문제는, 그 죄의 지적이 단지 지도층
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언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의 상류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악들 가운데 탐심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이웃들을 다 멸하고 땅에 혼자만 거하려는 듯이 자기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2-3장을 보면 상류층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중간 계층의 몰락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되, 무엇보다 그들의 죄의 뿌리인 탐심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탐심의 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러한 모습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기회가 없어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좋은 아버지이지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상류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 탐심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세리 가운데 마태나 삭개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12-13에서도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는 것이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탐심이나 폭력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멀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웃들을 뼈까지 먹어 치우는 이러한 일들은 사회 상층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다른 아이의 인격을 말살하면서까지 자기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가 예언자가 지적한 죄의 모습이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신 것도 옛날 바리새인이라는 한 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죄를 지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의 죄

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미가 예언자는 여호와와 신과 그 능력으로 죄의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성신을 의지하여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응답송: 시편 14편